

LG화학, “바닥재에도 웰빙 물질”

환경마크 획득 친환경 바닥재 출시 ... 신주거문화 겨냥 본격 마케팅

LG화학이 건강과 환경을 중시하는 웰빙(Well-Being) 시장을 겨냥해 환경마크를 획득한 친환경 바닥재 <LG 베스트빌 데이웰>을 출시하고 본격적인 마케팅 활동에 들어간다.

LG화학이 새롭게 선보인 <LG베스트빌 데이웰>은 기능성 물질인 NTM380(New Technology Material for Human)을 적용한 바닥재로, 충북대 의대 연구팀과의 공동 임상실험 결과 새집증후군의 가장 큰 원인물질인 포름알데히드가 타사 제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

NTM380은 LG화학이 3년 동안의 연구를 통해 개발한 물질로, 혈액순환 개선과 스트레스 및 긴장 완화 등의 효과가 있다.

LG화학 관계자는 “최근 소비자들의 최대 관심사인 편안하고 안락한 웰빙 주택문화 개념에 가장 부합하는 제품으로 개발했으며, 본격적인 이사철을 맞아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펼쳐 사업부의 주력 아이템으로 육성할 계획”이라고 밝혔다.

<Chemical Journal 2004/03/09>